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4월 28일 (제125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림

왜 기도하나요?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왜 기도를 훈련시키시나요?” 그 질문에 내 답은 이것이다.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도하면 내 것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빌4:13),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막16:17~18)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요14:12)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이루게 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약1:5), 미워 죽을 지경이던 자들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마5:44), 빈궁한 자에게 공의, 곧 나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며(시82:3),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갈5:22~23)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된다(벧후1:4).

내가 샘플이다. 농사꾼의 자녀였던 내가, 세상 명예와 향락을 즐기던 내가, 칼 나간 다 총 나간 다 하던 성품이었던 내가 오늘의 이초석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 이상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하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기도하니 성품이 달라지더라. 기도하니 지혜가 임하더라. 기도하니 담대해지더라. 기도하니 감사가 넘치더라.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가? 그래도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능력, 내 성품, 내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영혼육의 정답과 해답을 보면서 오답을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인생은 내 생각과 말로 만드는 작품이다

대사(大事)를 앞두고 있을 때면 목사님은 항상 한계 이상의 도전을 불사(不辭)하신다.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대집회를 앞두고 진행된 3박 4일의 춘계 산상집회 기간 동안 목사님은 아침과 저녁 집회를 직접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세부집회에 성령의 대역사로 응답하시길 바라는 간절함이다. 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농사일에 많이 비유하셨다. 물론 당시의 주업종이 농사였기에도 그러하셨겠지만, 땅에 씨앗을 심고 가꾸고 추수하기까지 농부가

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15:5~6).

목사님은 집회 내내 이 땅과 천국에서 모두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셨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요삼1:2) 최소 하루 3시간의 기도와 세 번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뿐 아니라 아침 체조, 아침 토스트 및 음료를 비롯한 각종 풍성한 식사로 육의 강건함도 더하는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 목사님의 가르침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까지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핵심을 짚어주는 설교

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삶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라니까요? 무책임한 자에게 일을 맡겨보세요. 게으른 자가 무슨 일을 해낼까요?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에 부정을 제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2024 춘계산상집회(4월 15일~18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들이는 수고를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절대 거저가 없음을 깨닫는다. 목사님이 “공짜는 쥐뿔에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속이고 사기 치는 자들이나 공짜를 말하지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롬10:10). 그리고 그 마음과 자세가 죽는 날까지 변질되면 안 된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변질되어 예수라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비틀어져 아궁이에, 불지옥에 떨어질 뿐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

였다.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 땅이나 영원 세계의 복된 삶이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40년 목회 동안 매일 460장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언젠가 이 땅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그분이 예비하신 본향집에 들어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매일 기도하듯 찬송합니다. 매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는 것이 내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나의 오늘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 덕분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의 충만을 얻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일구고 세계를 교구화해왔습니다. 늘 말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

또한 내 삶을 죄악으로 끌고 가려 발버둥치는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내 몸에 침투하여 자리 잡은 고장간첩 귀신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총과 총알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 용법을 몰라서, 총구가 녹슬어서, 두려워서 총을 쏠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귀신의 밥이 되어 병과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던 철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정도가 아니라 쓸 수가 없습니다(전10:10).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말을 구조조정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하나님 자녀의 영적 권세로 금세와 내세의 삶 모두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필리핀 세부 집회 2024년 5월 3일~10일
 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시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21~39)

육체속 고정간첩 귀신을 잡아내라

간첩은 한자로 풀이하면 ‘틈 간(間)’과 ‘염탐할 첩(諜)’으로, 적진을 살펴 정보를 빼내고 이간질하여 내부의 와해와 분란을 발생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첩은 시민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며 본국의 지시를 받아 국가 내부를 교란하고 급기야는 멸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대립관계나 적국의 사령탑이 직접 들어와 싸우는 게 아니라 간첩을 침투시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든, 국가든 간첩(스파이)을 색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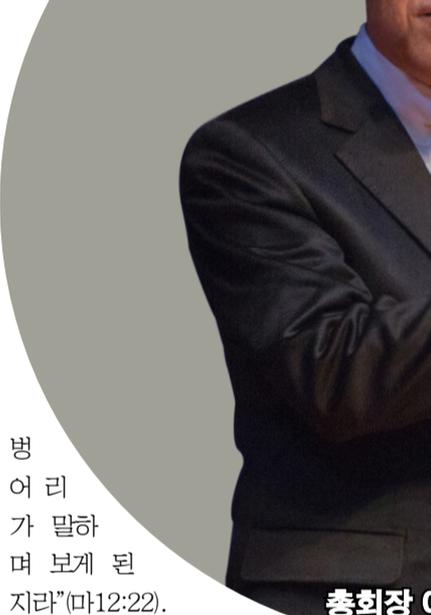
녹슨 연장을 가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다

이와 같은 고정간첩이 우리 안에도 파리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 몸에 투입된 고정간첩입니다. 귀신은 악한 마귀의 지령을 받아 우리 몸에 투입되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점을 마련하고 사회 내부를 교란하는 고정간첩만 잡아내면 국가가 평안한 것처럼, 고정간첩인 귀신만 쫓아내면 악한 마귀와 악령들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 오셨습니다(요일3:8).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 중 대부분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바로 고정간첩만 색출해내면 적국과의 교류가 끊겨 적국에서 취할 방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고정간첩인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물 중 가장 귀한 것이 육체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육체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요? 명예요? 다 그림의 떡입니다. 예전에 어느 재벌을 만나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통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소화할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는데 재벌이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감기에서부터 전염병, 암까지 다 고정간첩인 귀신의 소행입니다. “다 귀신이 한 거면 귀신만 쫓으면 병들 사람 없게요?” 하는 분들, 맞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마8:16). 귀신만 쫓으면 모든 병에서 나옴 받고,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도 귀신입니다. 의사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지만,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막1).

병어리 되고 소경 되게 하는 것도 귀신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가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간질이요? 마태복음 17장에 어느 아버가 아들을 데려와,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마17:15)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마17:18). 간질도 귀신이라는 거죠. 정신병이요? 그것도 100% 고정간첩인 귀신의 소행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사이를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끊는 정신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막5:8) 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중풍도 귀신이 일으킨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는 단적으로 ‘각색 병’(눅4:40), ‘모든 병’(막1:32)이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이 병에는 이런 치료법, 저 병에

는 저런 치료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모두 ‘귀신을 쫓으심’으로 모든 병, 각색 병을 고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전매특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선을 딱 긋습니다. 이 건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호4:6)라고 말씀하셨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눅6:39)라고 하시며 지도자

의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나는 것은 귀신이지요. 간첩의 정체를 모르니 맘대로 혼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10:1).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요1:12).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그런 능력이 없던데~” 하시는 분들,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그냥 교회 뜰이나 밭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

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권능’이란 예수가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 귀신을 쫓을 권(權)도 성령을 받은 자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추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알이 장전된 총은 아이가 쏘도, 여자가 쏘도, 노인이 쏘도 나가서 동물이 달려들 때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은 성령 받은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제가 세계에 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저 뿐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아이들의 감기도 낮게 하고, 중풍병을 일으킨 귀신을 쫓아 남편을 일으킨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귀신을 쫓으셨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오직 기도도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9). 이는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주신 답입니다.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고 해도 총구가 녹슬면 총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종일 귀신을 쫓으신 후에 밤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자

여러분, 도둑이나 간첩은 밝은 걸 싫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아 귀신이 틈타지 않고, 혹여 들어왔다고 해도 바로 발각되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의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요? 언제든 다시 들어옵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얼른 다시 들어와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12:43~45).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5:19),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귀신을 쫓은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생활이란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다. 감사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요, 기쁨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감사와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는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서 표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찬송으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찬송은 나의 입장에서 슬픈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내 형편 처지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곤고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다(시22:3).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전쟁이 났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민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일 새벽 미명에 항오를 벌이고 찬양하라”고 응답하신다. 이튿날 새벽에 성 위에 올라가서 목청껏 열심히 찬양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연합군들이 저희끼리 싸우는 것이다. 날이 흰히 밝았을 때 성벽에서 내려다보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리고 성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옛새 동안을 언약제를 앞세우고 돌라. 그리고 제 칠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

고 큰소리로 찬양하라”고 하였고, 그들이 순종하여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일행이 빌립포 감옥에 갇히던 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며 나오고 그 간수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옅은 엄청난 고난 중에도 찬양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하였고,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서 찬송할 때 물고기가 토해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송 이상의 능력은 없는 것이다.

시편은 원래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찬양으로 노래하는 책이다. 특히 146편부터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찬양이 쏟아진다. 148편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데서 찬양할지이다”, 149편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이다”, 150편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이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산 제물이다. 감사하되 힘써 감사하고, 기뻐하되 힘써 기뻐하고, 찬송하되 힘써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신기류 목사

:: 성경에세이 ::

환골탈태(換骨奪胎)

여보게!
미켈란젤로 알지? 그가 어느 날 큰 바윗덩어리를 작업실로 가지고 왔대네.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바위로 무엇을 하려는 건가?’ 궁금해했지.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몇 날 며칠 동안 그 바위를 망치로 이리저리 깨뜨리고, 끌로 갈아 마침내 ‘모세상’을 만들었다네. 사람들은 바위가 모세상으로 변한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네.

그렇다네. 돌도 석수장이를 만나면 축대나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되지만, 조각가를 만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베드로는 밭길에 채는 잡석에 불과했네. 그는 다분히 충동적이고,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로 실수가 많았으니 잡석이라 할 수 밖에. 그런 그를 예수가 부르셨네. 미켈란젤로가 바위를 작업실에 들인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말씀하셨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너는 이제 잡석이 아니라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야.

다이아몬드도 세공되지 않으면 잡석에 불과하듯, 돌도 다듬어져야 반석이 되는 법, 주님은 베드로를 다듬기 시작하셨네. 망치로 맞고, 끌로 갈리는 과정이었네. 스승을

배반하는 것으로 인해 실패라는 망치로 맞고, 다시 물로 씻어 회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점차 변모하여 반석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지.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온갖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기뻐했다네. 주님이 그를 환골탈태(換骨奪胎)시키신 거야.

나도 베드로와 성향이 그리 다르지 않았네. 성격도 ‘갈 나간다 총 나간다’ 할 정도로 급했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미켈란젤로가 들고 온 바윗덩어리 같은 모습이었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 당신의 작업장에 두시고 다듬기 시작하셨네. 온갖 핍박과 모함으로 흑한 단련을 시키신 후 세계로 보내사 나를 전도자로 만드셨지.

여보게!
고난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그것은 잡석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라네. 옅의 고백이 힘든 자네를 위로했으면 하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

봉우

할 수 있다

나폴레옹 군대가 패배 직전의 전쟁에서 북 치는 소년을 향해 소리친다. “퇴각 북을 울려라!” 하지만 북 치는 소년은 나폴레옹에게 말했다. “장군님! 저는 당신으로부터 한 번도 퇴각 북 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돌격 북만을 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말에 깨달은 나폴레옹은 즉시 명령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돌격 북을 울리도록 하라.” 결국 나폴레옹과 군사들은 다시 힘을 얻어 패배의 수렁에 빠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같지 않은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우리가 못 할 것이 없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못 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결국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주님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그리하면 이기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다.

진정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임을 기억하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낮은 울타리 ::

나를 살린 주 보혈

최근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당장 생계와 연관된 문제라 그 문제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고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직분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새벽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약해진 제 마음을 더 흔들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뜨겁던 제 마음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머리로는 이 고난이 축복이고, 주님의 큰 계획임을 아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찬양들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찬양 가사에 내 문제에 공감하시고, 응답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실 거라고 적혀있는 찬양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모든 가사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예배를 갔는데 예배 때 홀리워십에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에 놀랍게도 그전까지 냉랭하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울린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저는 저를 살릴 찬양은 절 위로하는 가사의 찬양일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날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전 문제를 만난 후 계속 다시 일어날 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제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 저는 제가 이 고난을 통해 받아야 할 것보다, 제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가 위로받지 않아도 괜찮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 자체가 이미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다면, 아픔이 다 내려놓고 뽀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돌아가 봅시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장수정

:: 내가 매일 기쁘게 ::

:: 진리에 이르는 지식 ::

군맹무상(群盲撫象)

얼마 전, 내가 속해 있는 공공기관은 행사 개최를 위해 대형 기획사와 함께 일하였다. 대형 행사는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획사는 시(市)의 유력자를 통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는 조건 아래 이례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내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인맥(간접자본)을 잘 활용한 사례이다.

그러나 기획사는 모든 일을 인맥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행사를 돕기 위해 모인 공무원들을 하수인 취급하고, 언사를 무례히 행했다. 화가 난 공무원들은 협의를 포기하고, 조건을 갖추지 않을 시 허가를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맥을 통해 찍어누르고 불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보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고민하였다. 한 템포 쉬고, 목사님의 이전 설교들을

복기하였다.

‘인맥(간접자본)은 성공의 인프라’일 뿐 아니라,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관원)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롬13:3), “철저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설교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잠실학생체육관 임대를 위해 청와대 고위 관료와의 인맥으로 해결하려 하셨다가 체육관 실무자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간증을 하신 적 있다. 그 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지만, 이번 건과 비교해볼 때 기획사가 저지른 실수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기획사는 인맥은 잘 활용하였지만 고위층만 향한 편향된 인맥 관리로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였고, 돕는 자들을 무례한 태도

로 대하며 사업을 그르칠 상황에 부닥치도록 한 것이었다. 기획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사과하며 행사를 도와줄 것을 간절히 읍소하였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기획사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사자성이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란 속담과 같은 의미로 좁은 소견 또는 식견으로 잘못 판단한다는 뜻이다.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 때문에 성경과 설교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저질러선 안 된다.

삶과 신앙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봐야 한다. 목사님의 설교도 단편적으로 듣지 말고 여러 설교들을 두루 살펴보자.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다.

전호정 집사

루터의 종교 개혁(2)

1517년 어느 날, 요한 테첼이란 순회 설교자가 그를 호위하는 무장군대를 거느리고 독일에 나타나 교황청과 교황 레오 10세의 문장을 앞세워 당당히 행진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면죄부를 사라고 외쳤다. “금화가 현금 궤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들의 영혼은 연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루터의 신앙은 면죄부 판매를 찬성할 수 없었다. 1517년 10월 31일, 간밤에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논제를 교회 정문에 내걸었다. 교황청은 1520년 6월 15일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교서로 루터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기독교인의 최종 권위는 단연 성경이라 주장하였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번잡스러운 스킨라 신학이나 성 유물, 마리아 숭배에서 나오지 않고, 또한 로마 교황이나 교회 회의가 교회의 최종 권위는 더욱 아님을 굽히지 않았다. 교황이나 교회 회의도 인간의 주장이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루터의 ‘오직 성경’이란 말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교회사의 전통을 모두 부정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다. 루터는 성경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가르침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의 전통을 따르자 했다. 루터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중세 교회의 성례 전에 기초한 죄사함, 행위 구원, 면죄부에 의한 죄의 경감이나 구원, 신부를 통해 죄의 고백을 하기 위한 고해성사와 같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과정을 단숨에 제거해버린 인류 역사상 대(大)자유현장과 같은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오직 믿음과 은혜’의 현장을 선포한 루터였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음을 강조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신봉하므로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어있는 모습을 부각시킨다. 루터가 천주교의 대개혁을 주장한 것은 잘한 것이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하며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이승호 목사

:: 프롬 인터넷 ::

소실대득(小失大得)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이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그 슈퍼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자라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대기 시

작했습니다.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주시고,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돈보다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직

원의 조치에 대하여 언론 매체들의 칭찬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뒤, 슈퍼마켓 본사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차 나왔습니다. 그날 나간 상품 금액은 대략 4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언론에 노출된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효과는 4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 주님을 향한 노래 ::

십자가의 도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기독교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양피지에 수기로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부터 무교병과 유교병, 비파와 수금 등 성경에 나오는 각종 물품과 악기, 의복 등이 있었고, 외부에는 이스라엘 지형을 5,000분의 1로 축소하여 꾸민 야외 정원에서 떨기나무, 올리브나무, 우슬초 등 글자로만 보았던 나무와 풀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관람을 했는데 한 가지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2천 년 전 나사렛에서 난 예수는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며, 오히려 이단의 괴수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또한 훗날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본 구급함에는 십자 표시 대신 다

윗의 별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수학 시간에 볼 수 있는 덧셈 기호(+), 곱셈 기호(x)도 십자가 모양을 닮았다는 이유로 세로줄을 반만 그려서 표시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반감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갈릴리 마을에 해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좇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변 사람들은 미련하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환경에서 편히 살 수 있었던 총회장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 재산을 팔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배니, 기도하니,

모임이니 매일 같이 교회로 달려가고, 월급의 10%를 십일조라고 내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준비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며, 오리를 가지 하면 십리를 가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좇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호민 전도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랑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